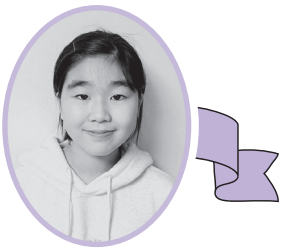
동상

동상

전국을 달리는 꼬마 여행가



윤지원 | 대구 왕선초등학교 5학년

"띠리링! 띠리링!" 오늘은 내 알람소리로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일어나자마자 지난 저녁 때 꾼 특별한 꿈이 내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었다. 나는 전국을 자전거로 달리는 꿈을 꾸었는데 정말 행복했고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꿈으로 꾸어서 너무 신기했다. 나의 특별한 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지금부터 나의 꿈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꿈속에서 나는 아빠와 함께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기로 하였다. "아빠, 저 정말 기대가 돼요!" 내가 신난 목소리로 말하니 아빠께서도 얼른 출발하자고 하셨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고장 대구에서 출발하여 충청도 단양, 강원도 평창, 춘천, 서울, 전주, 광주, 부산, 울산 순으로 총 8곳을 가기로 하였다. 꿈속이었지만 무척 설레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니 시원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들어 너무 행복했다. 달리고

달려 충청도 단양에 도착하였다. 단양은 마늘이 유명해서 아빠와 함께 유명하다는 마늘빵, 마늘통닭 등을 많이 사 먹었는데 마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빵, 통닭 등으로 먹으니 마늘 향은 났지만 무척 맛있었다. 맛있는 것들을 먹고 아빠와 함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시원한 그늘에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목적지인 강원도 평창으로 출발하였다. 한참 가다보니 다람쥐를 보았는데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꼭 갈색구름이 통통 뛰어가는 것 같았다. 다람쥐 덕분에 기분 좋게 평창에 도착했다. 평창은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로 날 맞아주었다. 아빠와 함께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서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멀리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 너머로 바다가 보여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양떼를 모는 개(보더콜리)가 양떼를 몰았는데 양들이 너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너무너무 신기했다.

다음 목적지는 춘천! 춘천에 도착하니 날씨가 정말 좋았고 하늘이 꼭 진한 파란색 물감으로 하늘을 칠해 놓은 것 같았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춘천에서 유명한 춘천 닭갈비를 먹었는데 매콤달콤 쫄깃쫄깃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살아온 대구 토박이인 나는 서울을 가본 적이 별로 없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남산타워가 보였고,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중심, 수도인 만큼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 서울에서는 마트에 들러 아빠는 에너지음료, 나는 에이드를 마셨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니 자전거를 오래 타서 힘든 다리에 불끈 힘이 솟아났다. 서울은 가볼 곳이 너무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궁금하여 경복궁, 덕수궁 등 옛날 선조들이 계시던 궁을 가보았는데 궁 앞에는 멋있고 절도 있는 문지기들이 있었고, 궁을 둘러보니 우리나라 역사와 선조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서울여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전주로 갔는데 전주는 옛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한옥마을이 유명하였다. 한옥마을에 가서 선조들이 만든 한옥을 보니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우수성을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광주로 출발! 자전거로 달릴 때 자전거 도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타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달리다보니 광주에 도착하였다. 광주에서는 나무가 많은 둘레 길을 달렸는데 줄지어 있는 나무들이 정말 아름다웠다. 광주에 유명한 곳은 무등산이라고 하여 무등산에 들렀다가 무등산 수박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수박 중에서 최고였다. 다음에 광주에 온다면 꼭 다시 한 번 무등산 수박을 먹을 것이다.

광주를 지나 한참을 달려 부산에 도착하였다. 아빠와 나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도착했는데 모래 백사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였다. 수영을 하다 보니 몸이 차가워졌는데 밖으로 나와서 모래찜질을 하니 차가워졌던 내 몸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부산에서는 해수욕도 하고 모래찜질도 하며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인 울산! 울산에 갈 때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도착하고 벤치에 앉아서 지금까지 다녀온 곳을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고,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꿈은 깼지만 정말 이루고 싶던 것을 이뤄낸 것 같아 뿌듯했다. 나중에 정말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한반도 전체를 자전거로 달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꿈에서는 자전거 길이 많이 없어서 불편했다. 자전거 길을 조금 더 만들어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나의 꿈인 자전거로 전국 달리기를 성공하고, 다른 나라도 자전거로 여행하는 그런 멋진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전국을 달리는 꼬마 여행가이다!”